

# 고금리에도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대'

### 가계대출자 1983만명 중 23%가 3곳 이상서 대출...비중도 최대 기록 279만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이상...빚갚느라 최소생계도 불안

국민 450만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끊어다 썼고 300만명 가까이는 월급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사이,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갚을 길도 막막한 한계 대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를 뜻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다중채무자는 작년 3분기(2023년 2분기 448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원)은 2분기(572조4000억원·1억2천785만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능하

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현행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보다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는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천억원)을 차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 농협 전남본부, 목포역서 전남 10대 브랜드쌀 홍보 캠페인



12일 목포역에서 귀경객을 대상으로 전남쌀 홍보에 나선 박종탁(가운데) 농협 전남본부장과 임직원들이 전남지역 브랜드 쌀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설 귀경객에 홍보 쌀 증정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12일 목포역을 찾아 귀경객을 대상으로 전남지역의 브랜드 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탁 본부장과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차상훈 전남농협 노조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실시하고 있는 쌀 홍보 캠페인은 귀경객에게 홍보용 전남 쌀을 무료로 제공해, 전남 쌀의 지속적인 구매와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날 증정된 홍보용 쌀은 2023년 전남 10대 브랜드쌀인 ▲담양 대슬맑은담양쌀 ▲영광 사계절 이사는집 ▲순천 나누우리 ▲무안 황도광쌀 ▲강진 프리미엄호평 ▲곡성 백세미 ▲나주 왕건이삼

넉쌀 ▲함평 함평나비쌀 ▲장흥 아르미쌀 ▲고흥 수호천사건강미와 전남농협공동브랜드 ▲풍광수도로 준비됐다.

박종탁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향우님들께서 전남 쌀을 통해 고향의 따뜻함을 기억 해주시길 바란다"며 "전남 쌀의 품질관리와 유통채널 확대에 힘써 전남 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전남TP 전남지식재산센터, IP 나래프로그램 지원 기업 모집

3월 4일까지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가 오는 3월 4일까지 전남지역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IP(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특허청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IP(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은 기업에서 보유중인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IP(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망기술 도출, R&D 방향 설정,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분쟁 예방, 사업 자금 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준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전환창업 후 5년 이

내 또는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의 업력에 해당하는 전남도내 중소기업이며, 최종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지식재산센터는 IP(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외에도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은행, 주담대·청년 맞춤형 특판 대출 시행

1700억원...금리 최소 4.04%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700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특판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판 대출은 고금리로 인한 지역민들의 이자 부담과 주거 고민 경감을 위해 준비됐다.

특판 주담대는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1.4%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7%p를 더해 최대 연 2.1%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4%(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기존 우대금리 최대 연 0.2%p에 특판 감면금리 최대 연 0.5%p까지 더해 최대 연 0.7%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4%(최고 연 5.0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 대출은 지난 8일 판매를 시작했으며, 주담대 1500억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 200억원을 한도로 판매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생활 안정자금, 타행 대출상환 용도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신세계 '발렌타인 기프트전' 진행

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까지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초콜릿 등 디저트류와 주얼리를 할인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발렌타인 기프트전'은 지하1층과 3층에서 진행된다.

먼저 지하 1층에서는 스페인 초콜릿 브랜드 '판크라시오' 팝업 매장을 만나 볼 수 있다.(사진) 판크라시오는 초콜릿 장인이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든 프리미엄 초콜릿으로 행사 기간 모든 품목을 10% 할인 판매한다.

럭셔리박스 컬렉션과 미니럭셔리 박스를 각각 7만1000원, 1만9800원에 판매하며 15만원 이상 구매 시 신제품인 핫초코 알라타차(1000ml)를 30명 선착순 증정한다.

'크레미빙'도 오는 18일까지 할인 및 선물포장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흥대 마카롱으로 불리는 크

레미빙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 기간 만수르 박스(20개입·5만7000원)을 4만5000원에 선보인다.

분관 3층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는 오는 25일까지 드림계이트와 듀얼사인 목걸이 2종을 30% 할인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